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한생을 빛내인 열혈혁명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내 조국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이하였다.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그 위업에 청춘도 생애도 기꺼이 바쳐싸운 김형권동지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을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혁명가 신념이 신념이 혁명이다.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생애보다 더 귀중한것이 혁명적신념이다.

김형권동지의 한생은 그대로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참된 삶을 빛내었다는 철의 진리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준 빛나는 혁명생애이다.

1905년 11월 4일 열렬한 애국자 이신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선생님의 셋째아들로 탄생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권선생님께서 지니신 지원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시였다.

김형권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선혁명의 지도핵심으로서 주체혁명위업개척과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그 나날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안겨 혁명하는 전사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하여, 그 삶과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에 대하여 심장으로 절절하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야 하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그 어떤 주저와 동요도 없었이 불굴의 신념과 의지, 강인담대한 배양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였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고 인민의 세계상을 안아오시려는 불타는 열정과 혁명임무에 대한 숭고한 자각을 지니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백산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의 지도성원으로 사업하시면서 참으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적들의 감시가 항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속에서도 백산청년동맹 핵심성원들을 찾아다니시며 조직을 확대해나갈 방향과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으며 연예공연과 노래모임, 독서발표모임 등을 통하여 청년군중속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시고 많은 청년들을 동맹조직에 받아들여도왔하시였다.

그이께서 새벽이슬과 눈바람, 비바람을 맞으며 군중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향을 널리 해설전전하시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서 반일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길고길은 길고 열매인진 모른다.

김형권동지의 이렇듯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무송, 안도, 량강, 장백지구와 연려, 보진, 해산, 갑산, 삼수 등 국내 여러 지방들에서는 백산청년동맹지부들이 조직될수 있었으며 백두산일대의 혁명화가 다그쳐지게 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서 무기공작과 함께 여러 지방의 청년들을 묶어세워 군사훈련도 주시였으며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던 독립군대원들을 교양하여 참다운 혁명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주시였으며 전략적방향이였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국내진출의 어려운 과업도 넘겨져 받아안으시였으며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단행하신 국내진출은 그대로 불타는

조국애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수놓아진 성스러운 행로였다. 그때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장소조의 첫 총성을 파발리에서 울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인민에게 불행을 들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철퇴를 안겨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선언하시고 파발리에서 악질경관 《오빠씨》순사부장들을 단호히 처단하시였으며 군중들앞에서 격동적인 반일연설을 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 조국파 파발리에서 울리신 총소리,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일제에 대한 울분과 원한을 풀어주는 복수의 총성이였으며 국내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킨 혁명의 메아리였다.

그날 모여온 군중들앞에서 망국노의 처지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남녀청년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서 일제를 때려부시라고 하신 김형권동지의 격동적인 연설을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는가.

리인모동지가 수십년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혁명가는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며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진리를 새겨준 김형권동지의 그날의 반일연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기때문이었다.

파발리에서 대담무쌍한 군사정치활동으로 원수들을 전멸케 하신 김형권동지께서 국내깊이까지 들어가 벌리신 투쟁은 참으로 눈부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적들의 포위를 헤치며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봉오풀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범계리인 탄 승합차를 억류하신 사실과 리원군 문양리일대에 진출하시어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신 이야기, 적수색대가 도사리고있는 북청군 대리의 광개왕상을 습격하여 원수들을 게 무리죽음을 안기시고 홍원군의 절부암부근에서 립기용변의 전술로써

맞다는 적들에게 뒷타격을 가하신 사실들은 오늘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김형권동지의 드물지 않은 혁명적신념을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혁명가는 절해고도에서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바로 여기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있으며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다.

김형권동지는 이것을 과감한 옥중투쟁과 빛나는 최후로써 보여주시길 결심한 혁명가이다.

연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김형권동지의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도 놓이지마라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각,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지조차 없다는 높은 자각을 지니고있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것처럼 엄격한 환경속에서도 옥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수들을 당황망조케 하였으며 조선혁명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는데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자 일제교형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이의 혁명적신념을 꺾어보려고 여러차례를 달려들었다.

육체까지 지탱하기 힘든 고통속에서도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와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체포되기를 더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기시니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감옥을 투쟁마당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으로 수감자들을 교양하시며 그들이 신념과 지조를 지켜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느날 김형권동지께서는 수감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에 대하여 해설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손에 무장을 들고 삼천리강토에서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 총칼과 남의 나라를 빼앗고 한대씩 날뛰는 일제놈들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승리할수 있다! 우리의 가르치신 수감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져 투쟁의 불씨로 되었다.

수감자들에게 우리 글을 배워주시고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필승의 신심을 깊이 새겨주시고 김형권동지.

오죽하면 일제 김형권동지께서 형무소를 적색화한다고 비명까지 질렀겠는가.

감옥이 투쟁마당으로 되어가는데 겁을 먹은 일제교형리들이 재판놀음을 벌여놓고 15년의 징역형을 언도했을 때에도 김형권동지께서는 오히려 놈들을 피고석에 몰아넣고 일제야 투쟁과 빛나는 최후로써 보여주시길 결심한 혁명가이다.

연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김형권동지의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도 놓이지마라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각,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지조차 없다는 높은 자각을 지니고있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것처럼 엄격한 환경속에서도 옥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수들을 당황망조케 하였으며 조선혁명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는데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자 일제교형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이의 혁명적신념을 꺾어보려고 여러차례를 달려들었다.

육체까지 지탱하기 힘든 고통속에서도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와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체포되기를 더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기시니 잠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감옥을 투쟁마당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으로 수감자들을 교양하시며 그들이 신념과 지조를 지켜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느날 김형권동지께서는 수감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에 대하여 해설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손에 무장을 들고 삼천리강토에서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 총칼과 남의 나라를 빼앗고 한대씩 날뛰는 일제놈들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승리할수 있다! 우리의 가르치신 수감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져 투쟁의 불씨로 되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군으로 키우시려는 뜻을 품어내려 신군혁명의 주력군, 기수로 적극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군군업적에 토대하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수로,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제 89 (2000)년 여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류제군이 간고한 시련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려는 지난 기간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를 정제화하고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일신시켜주는것이 바로 나의 의도이고 선군정치의 목적이이다. ...

선군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빛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 우리 혁명이 만민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자, 이것이 오늘 인민군대가 들고나가는 항진투쟁구호입니다. ...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대하여서와 군사기술적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돌파구를 열어제끼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기수, 돌격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 가르치심이었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수로!

바로 이것이 독창적인 선군원리를 천명하시어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것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동무들은 내게 나의 의견을 표현하여 어려운 때에 인민군대들에 자주 나가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한 조건에서 원수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암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위들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자면 인민군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것이 아니었는가.

강력한 당과 국가가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굳건한 조건에서 조국의 안전만 수호한다면 경제를 황폐화하고 인민생활을 추락시켜주는것은 시간문제라 보시고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제일 기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수호하시였으며 김일성조선의 영원한 번영을 담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철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나.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형권동지의 평도따라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완강한 공격정신을 안고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 있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3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조세 트루만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파 일행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클라우디아 폰 로델 주조 세계식량계획 대표가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브라질리아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당선자 틸마 바나 로우세프각하 나는 당신이 브라질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녀성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이번이 당신이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것은 당신에 대한 귀국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로 립니다. 나는 새 세기에 들어와 총계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11월 1일 평양 로 조 도미니카련방 대통령 니콜라스 리버풀각하 나는 도미니카련방독립 3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서 존재하는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11월 3일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남도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남도현지지도 기념보고회가 3일 함흥대학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광범기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류현식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표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도당, 정진, 경제기반,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광범기책임비서가 기념보고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8 (2009)년 11월 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뜨거운 은사를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8비남련방기업소, 홍남비로련방기업소의 가스화공정건설을 찾으시고 생산실태와 건설정황을 료해하시고 기업소들앞에 나서는 파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강강아치발전소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돌아보시면서 발전소관리운영을 껴고들며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 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2.8비남련방기업소에서 우리의 대경사를 안아오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왔을뿐 아니라 수일명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났으며 홍남비로련방기업소에서 방대한 가스화대상건물이 추진되어 비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알곡생산이 늘어나고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중국국무원 부총리를 만났다

여기에는 로동철재각부총리를 비롯한 총리일행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서기 손정재, 길림성인민정부 성장 왕유림, 외교부장조 호정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류홍재 등 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기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드리것을 장담한 동지가 최영림동지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중국당과 정부는 내각총리일행의 이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과 쿠바공화국 군사대표단 회담

[아바나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현승철 쿠바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 상대측에서 알바로 로베스 미에라 쿠바혁명무력성 상급 겸 쿠바혁명무력 총참모장, 쿠바혁명무력성과 쿠바혁명무력 총참모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 관계와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보았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 아바나 출발

[아바나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쿠바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3일 아바나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알바로 로베스 미에라 쿠바혁명무력성 부상급 겸 쿠바혁명무력 총참모장, 쿠바혁명무력 공군 및 반항공사령관, 관계일군들과 현승철 쿠바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당과 군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있는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배루 김일성주의연구소에서 최근 블레전을 발행하였다. 블레전은 《조선로동당대표 자회 김정일동지를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추대, 새로운 지도기관 선거운동을 더욱 강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9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 이것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군조직의 절대적인 지지의 표시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

[조선중앙통신]

금속공업부에서는 우리의 원료, 연료에依거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계급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대고조전속도를 높이고있는 북방의 대야금까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할 한마음으로 철강재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책의 노동계급은 전후 반세기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완수해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령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새해의 불길과 함께 새해의 열정을 표현하시였다.

올해 3월 또다시 령합기업소를 찾으시어 생산정세와 현대화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기쁨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전한 혁명의 길에서 다지고있는 불굴의 정신력을 총괄하시며 대고조전철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고무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총공세의 양성에 힘쓰는 전진군을 다그쳐서 령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경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었는 경제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1만t 프레스작업현장이다.

드넓은 현장에서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며 기운차게 가동하는 1만t 프레스의 작업소음을 바라보노라니 나라의 자립적인경제의 위력에 대한 긍지가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명쾌한 글발을 새긴 천정기공기둥이 힘있게 오가고 가열

회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강철 1작장의 전투원들은 차지당 용제시간을 단축하며 출강회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 한편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강철 2작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집적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편만공정들간의 령계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작장에서는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창조적기회를 합쳐 새롭게 확립해놓은 정련공정이 큰 온을 내도록 함으로써 강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원호식련속조기작업반원들은 조끼의 여러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생산능력을 훨씬 높여나가고있다.

3호전로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용선조건에 맞게 보충원료와 부원조립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생산정세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보장단위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철강재생산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면서 대고조의 불길과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반수송사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수송편들에 대한 정상적인 순회점검과 보수작업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중계장마다에서 만가동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산소2작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설비조작과 운영을 잘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설비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장치들을 령속도

중요대상들에 요구하는 대형 단조물들을 성과적으로 생산해내셨다.

이름마후 집체같은 천정기공기가 용을 쓰며 잘 가열된 용강 한 소를 물고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신호공 정남력동무의 유리창문을 통하여 우리의 시야에 안겨온다. 우리에게 책임기사는 해당 부분 과학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정기공기의 창조적조동에 1만t 프레스의 작업을 조종할수 있게 현대화를 실현하였다고 기쁨에 넘쳐 자랑한다.

수기업을 최대한 단축해나가고있다.

청암광산, 무수광산의 노동계급은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생산량을 부쩍 높이는 한편 운반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철강재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령합기업소안의 전체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만만한 자신성에 넘쳐 총공격전의 불길과 함께 지퍼 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김충성



생선적양양의 불길높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작업자들이 맡은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없이 수행하려는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이곳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 생산선비들의 보수진투를 본때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노동계급은 당이 결심하신 무조건적인 철강생산의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 올해에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당면한 배무생산과 함께 기술개선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있다.

조강작장 노동계급이 배무

정신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작업자들이 맡은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없이 수행하려는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이곳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 생산선비들의 보수진투를 본때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노동계급은 당이 결심하신 무조건적인 철강생산의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 올해에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당면한 배무생산과 함께 기술개선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있다.

조강작장 노동계급이 배무정신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작업자들이 맡은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없이 수행하려는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이곳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 생산선비들의 보수진투를 본때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었는 경제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1만t 프레스작업현장이다.

드넓은 현장에서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며 기운차게 가동하는 1만t 프레스의 작업소음을 바라보노라니 나라의 자립적인경제의 위력에 대한 긍지가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명쾌한 글발을 새긴 천정기공기둥이 힘있게 오가고 가열

회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강철 1작장의 전투원들은 차지당 용제시간을 단축하며 출강회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 한편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의 위력을 높이 떨치자

기사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당일군의 전형을》을 보고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은 뜻깊은 역사적시기에 호환되는 당일군이 시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당일군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몸은 비록 조국의 최북단 한끝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혁명의 수뇌부의 결에 두고 애국으로 행동을 배태어는 경원군당 책임비서 서길호동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한생을 갚을 줄 모르는 선군시대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 참된 애국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겐 바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하다.》

나는 당보에 실린 기사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를 보면서 애국으로 불라는 선군시대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삶과 투쟁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선군시대의 혁명정신을 옹호고수하는것을 당사업의 생명으로 불어넣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많은 혁명사적과 구호문헌들을 발굴하였으며 고난의 시기에

형명사적편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딸을 농촌에 진솔시키고는 농장별에서 살다같이 하면서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실천에서 기수로서의 참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미배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군의원화, 수밀화과 발전소건설, 양어장건설, 살림건설 등 참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바르 인민 애국자, 선군시대의 진짜배기 당일군을 키워주신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축복속에 선군시대 당일군의 전진으로 영광의 단상에 오른 선군시대의 삶과 투쟁은 우리 당일군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우리 당당위원회는 선군시대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심화시켜 온 것을 애국적으로 높이 평가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당위원회에서 일하는 데없는 공직자를 안고 선군시대 당일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해나갔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살며 투쟁하는 당일군답게 도안의 대고조전투장에서 선군시대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의 애국자의 더운 피를 강그러 버쳐나갔다.

우리는 도는 경공업공장이 많은 도이며 통천군 신안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과 같이 선군시대 본보기단위가 많은 도이다.

우리들은 경공업과 농업에 다스려온 박자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생산자대중의 정신적보양을 위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더 참신하게 해나갔다.

우리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담대한 배짱을 안고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려 가는 애국애는 어느 단위, 어느 일터나 CNC가 훌륭히 실현되게 하였다.

우리는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당조직들의 책임성과 연합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원땅에서 울린 당사업의 메아리가 우리 도를 힘있게 전진하도록 함으로써 선군시대에 국자의 대부대가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하였다.

평양북도당위원회 비서 김국영

인민을 위해 뚜렷한 흔적을 남기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심성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순배심,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할 때 자기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빛수 있다.》

우리 령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당보에 실린 서길호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고성은 자기가 하고 행복과 영광은 인민들이 누리게 하는것이 그의 고상한 사업기념이다. 능천진지를 공고히 하고 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당일군에 전형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원군당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에 대하여는 큰 공경과 감사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를 나는 몇번이나 읽어보았다.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 참된 애국자이다.

이제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된다.

당면하여 우리들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하며 혁신과 위업을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위한다.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 령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우리들은 선군시대 당일군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선군시대의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의 투쟁기풍을 또 하나의 훌륭한 교본으로 삼고 더욱 역세를 싸워나갔다.

선천지구청년학생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필

농업생산의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이 달려나가 실질적인 과학연구성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며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과학자들속에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있다.

현실에서 큰 은을 내는 미생물비료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

이 좋아합니다. >
 <정경희박사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미생물비료의 우월성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이 미생물비료를 말하면 나라가 시련을 겪던 시기부터 그가 농업 생산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열의안고 10여년 동안 꾸준히 과학연구활동을 벌여 성공시켰던 것이다. 박사님의 열의는 열의안고 10여년 동안 꾸준히 과학연구활동을 벌여 성공시켰던 것이다. 박사님의 열의는 열의안고 10여년 동안 꾸준히 과학연구활동을 벌여 성공시켰던 것이다. ></p></div>

미생물비료의 효용을 높이며 환경피해가 있는 감람나무에서 논벼의 뿌리영양을 돕는 역할을 한다. ></p></div>

미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

미생물비료의 효용을 높이며 환경피해가 있는 감람나무에서 논벼의 뿌리영양을 돕는 역할을 한다. ></p></div>

미생물비료를 도입한 전방적인 실험을 벌여온 바와 장수의 정보당 수확고는 평균 0.5t 이상 더 번 것으로 된다. ></p></div>

현실은 새로 개발된 미생물비료는 그 어느 단위에서나 손쉽게 생산이용할 수 있으며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p></div>

화선군의 의료일군들

그렇게 의식을 잃은 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시일이 또 흘렀으나 환자는 도저히 깨어나지 못했다. ></p></div>

그렇게 의식을 잃은 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시일이 또 흘렀으나 환자는 도저히 깨어나지 못했다. ></p></div>

그렇게 의식을 잃은 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시일이 또 흘렀으나 환자는 도저히 깨어나지 못했다. ></p></div>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최근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농산과 축산의 버섯재배로 연결되는 새로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농축산물 생산을 늘이고 있다. ></p></div>

어내는 방법으로 150t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퇴지우리에 사용하는 것은 100여t의 물거름은 그대로 토중에 내리고 있다. ></p></div>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교원학자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교원학자들은 간척지농업의 양과 논농의 영도를 신중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휴대용전자식검도계를 개발하였다. ></p></div>

간척지농업의 양과 논농의 영도를 신중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휴대용전자식검도계를 개발하였다. ></p></div>

선천군 학생들의 높은 경쟁열의

선천군 학생들의 높은 경쟁열의

선천군 학생들의 높은 경쟁열의 ></p></div>

선천군 학생들의 높은 경쟁열의 ></p></div>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4일 보반 대령 중앙위원회 제1비서부 단장인 최영일동지는 3일 의례방문하여 바르브르 열방 주조 스웨리예왕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p></div>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스웨리예왕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3일 의례방문하여 바르브르 열방 주조 스웨리예왕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p></div>

월남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월남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p></div>

월남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p></div>

제21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폐막

특혜운성, 경공업성, 국가품질감독국, 제정성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삼원세멘트련합기업소, 북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 등이, 경연부문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방직공장, 김천방직공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p></div>

특혜운성, 경공업성, 국가품질감독국, 제정성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삼원세멘트련합기업소, 북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 등이, 경연부문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방직공장, 김천방직공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p></div>

우리 나라 팀이 일본 팀을 2:1로 라승, 결승경기에 진출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에서 ></p></div>

한생을 교단과 함께

이주권 제철중학교 교장 박삼순동무는 40여년 후배교 육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는 성실한 교육자이다. ></p></div>

이주권 제철중학교 교장 박삼순동무는 40여년 후배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는 성실한 교육자이다. ></p></div>

로씨야를 방문 하였던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귀국

비행장에서 리해봉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p></div>

비행장에서 리해봉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p></div>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일행이 떠나 갔다

평양에서 박정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p></div>

평양에서 박정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p></div>

수리아방분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출발

평양에서 박정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p></div>

평양에서 박정호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과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p></div>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일행 도착

비행장에서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인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p></div>

비행장에서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인 알렉세이 드 마체코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p></div>

